

스마트폰 사용자의 성격과 이용 동기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이 선 중 이 민 규[‡]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K-EPS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이용자의 성격과 이용 동기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 대학생 483명(남자 189, 여자 294)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용 동기로는 오락 및 여가, 과시 및 유행, 관계 유지 동기로 나타났으며 성격은 신경증적 경향, 외향성-내향성, 충동성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이용 동기에 어떤 성격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오락 및 여가에는 신경증적 경향과 감정이입, 과시 및 유행에는 외향성-내향성, 정신병적 경향, 허위성, 충동성, 관계유지동기에는 외향성-내향성과 감정이입이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를 바탕으로 구조모형을 설정하였다. 결과는 신경증적 경향, 오락 및 여가, 과시 및 유행이 스마트폰 중독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신경증적 경향은 스마트폰 중독 사이 오락 및 여가 이용 동기가 부분매개 하였고, 외향성, 충동성과 스마트폰 중독 사이에 과시 및 유행 이용 동기가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스마트폰 중독, 성격, 이용 동기, K-EPS

[†] 이 논문은 이선중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 정리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민규, (660-701)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Tel: 055-772-1264, E-mail: rmk92@chol.com

현대 문명사회가 되면서 디지털매체는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 인터넷, 무선호출기, 휴대전화의 도입으로 생활은 더욱 편리해졌고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휴대전화는 통화와 단문메시지 서비스(SMS) 기능을 주로 사용한 반면에, 스마트폰은 기존의 휴대전화에 인터넷 통신과 정보검색 등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로서 사용자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동 중 인터넷 통신, 팩스 전송 등이 가능한 기기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국내에는 2009년 11월, 아이폰의 도입과 데이터무제한 요금제가 생기면서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미래창조과학부(2016)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2016년 1월 말 현재 4,300만 명이 넘었다.

스마트폰의 사용이 대중화 되면서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해 하는 등 중독적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겨레 신문(2012)에 의하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하다며, 청소년의 경우, 또래문화에 민감해서 친구들의 대화에 끼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엠디팩트(2015)에서는 자허한 후세인 영국 더비대 교수의 연구결과를 예로 들면서, 스마트폰 중독은 자기애나 우울증 등 부정적인 성격과 연관된다고 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5)의 2014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0세~59세 스마트폰 이용자 중 스마트폰 중독률은 14.2%로, 6.9%의 인터넷 중독보다 7.3%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14년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전년 대비 2.4%증가했다.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의 과도한 몰입으로

인하여 생기는 초조, 불안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장애이다(강희양, 박창호, 2012). 그리고 스마트폰을 포함한 새로운 디지털매체 사용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인터넷으로 인한 강박적 행동(internet-enabled compulsive behavior)' 혹은 '디지털 미디어 강박증(digital media compulsion)' 또는 '전자기기의 병리적 사용(pathological use of electronic media)'과 같이 새로운 디지털 기기 전체를 아우르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즉,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여러 전자기기의 발전과 확산이 더 이상 기존의 데스크탑, 노트북, 넷북을 기반으로 통칭되던 인터넷 중독만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매체 전체를 아우르는 매체중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Bowen & Firestone, 2011: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에서 재인용).

매체의 사용은 인간을 능동적 주체로 본다. 이용자는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채우고자 매체를 선택하고 이용하여 그 결과로서 충족을 얻는다. 이용 동기를 충족한 이용자는 매체를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된다(Eighmey & McCord, 1998; Katz, Blumler & Gurevitch, 1974; 신영미, 2012에서 재인용). 단순히 어떤 행동을 즐기고 자주 반복한다고 해서 중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절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조절하기 어렵고, 그 결과로 개인적이거나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는 생활의 균형이 깨어진 상태라면 중독이라고 할 수 있다(김교현, 2002).

중독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될수록 행동중독에 관한 연구들은 개인의 성격에 주목하여 진행됐다. 성격에 대해 Cattell(1950)은 한 개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예언해주는 것이라며 행동의 일관성과 예언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Eysenck(1970)는 환경에 대한 개인의 영향으로 인격(character), 기질(temperament), 지성(intellect) 그리고 신체(physique) 요소들이 다소 안정되고 영속적으로 조직화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더불어 Eysenck와 Eysenck(1991)는 정상 집단과 병리 집단을 모두 포함하여 성격 차원에 대한 탐색을 이상 행동의 분야까지 확장시켰고, 그의 이론은 4대 기질이론과 현대 경험적 성격이론의 복합체로서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실증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신석기, 최태진, 박성미, 이은영, 김유미, 2007). 이는 성격적 특성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행위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중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미한 상태이나,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조현옥(2012)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따라 충동성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20대부터 6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강주연(2012)은 스트레스나 충동성이 위험요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조수연(2014)의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은 Big-Five 성격 유형 중 신경성이 위험요인이라고 하였다. 과거 연구에서는 다양한 성격 특성 중 일부를 반영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성격적 특성과 더불어 스마트폰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 전,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무료함 해소(박지영, 김귀애, 홍창희, 2012), 관계유지(신영미, 2012),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자기 현시 및 표현(우형진, 2007), 오락(이해경, 2008)을 위한 용도일 경우, 중독적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고위험 사용자군이 오락/여가, 서비스, 기능성의 이용 동기에 높은 점수를 보였다(조미경, 2014).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혜진과 이은희(2015)의 연구에서는 오락/여가, 과시유형, 정보획득 동기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스마트폰 중독 관련 연구가 활발해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성격적 특성과 더불어 어떤 의도로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때 중독적 사용의 위험이 높아지는지에 대한 폭넓은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 요인 중,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자신의 성격적 특성이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 요인이라 할지라도 스마트폰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휴대전화 사용자를 대상으로 성격과 이용 동기와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면, 이성엽, 구동모, 주선희(2009)의 연구에서는 의존성, 충동성이 강한 사람은 모바일 콘텐츠 이용 동기가 높다고 하였으며, 송선희, 하대현, 최형주(2004)는 내적동기가 지적 개방성 및 외향성 요인, 성실성 요인과 유의한 상관이 있고, 외재동기는 신경증 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용(2008)은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 집단을 비교했는데, 한국 대학생의 경우에는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보다 채팅/인스턴트 메시징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주로 이용하는 동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떤 성격과 이용 동기가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요인이 되는지 알아보고,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방 법

참여자

본 연구는 2012년 9월과 10월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의 대학생 57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회수된 자료 중 불성실한 응답, 결측 문항, 피쳐폰 사용자, 이상치를 보이는 자료를 제외한 483명(남자189, 여자 294)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21.41세였고, 2학년이 38.50%로 가장 많았으며 3학년 24.84%, 4학년 17.59%, 1학년 16.56%, 기타 2.48%순이었다. 그리고 스마트폰 운영체제로는 안드로이드 89.02%, IOS 10.77%, 윈도우모바일 0.21%였다.

측정도구

한국판 아이젠크 성격검사(Korean-Eysenck Personality Scale for Adult: K-EPS).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성격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이현수(1997)가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한 한국판 아이젠크 성격검사(K-EPS)를 사용하였다. I부는 Eysenck와 Eysenck(1991)의 EPQ-R의 81문항, II부는 I부의 단축형으로 정신병적 경향성(P), 외향성-내향성(E), 신경증적 경향성(N), 허위성(L)의 네 개 하위 척도로 4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III부는 충동성(Imp), 모험성(Ven), 감정이입(Emp)으

로 40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과 대상자의 성격 특성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대상자의 성격에 대해 폭넓게 탐색하고, 응답시간과 문항 수를 고려하여 II부와 III부를 사용하였으며, 예/아니오로 응답하였다. 정신병적 경향성(P)점수가 높은 사람은 공격적이며 정서적으로 냉담하고, 동정심이 부족하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매우 둔감하다. 또한 충동적이며 자기중심적이고, 독창적이며 진귀한 물건을 수집하는 별난 취미를 가지고 있고,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외향성-내향성(E)점수가 높은 사람은 사교적이며 많은 친구를 사귀고, 항상 기분이 좋으며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모험심이 강하고 농담을 잘하며, 활동적이고 생각이 넘친다. 또한 자신의 기분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신경증적 경향성(N)점수가 높은 사람은 정신 신체적 질병을 자주 호소한다. 일단 손상된 정서 상태는 쉽게 원상 복구되지 않고, 기분변화가 심해 쉽게 우울해지며, 비합리적이며 강직하다. 또한 사소한 스트레스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허위성(L)점수가 높은 사람은 자신을 솔직하게 표출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자랑하는 편이고 습관이나 행동은 모두 좋은 것으로만 생각한다. 또한 남의 잘못을 훈계하면서 자신은 그런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경향이 있다. 충동성(Imp)점수가 높은 사람은 말하고 행동할 때 깊히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에 착수하기 전에 생각하는 일이 없으며, 얼떨결에 일을 처리하는 버릇이 있다. 나중에 후회할 만한 일에 자주 관여하며, 무계획적인 야간외출을 즐기고, 일의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모험성(Ven)점수가 높은 사람은 모험을 좋아한다. 다이빙이나 스쿠버 다이빙처럼 위험한 여가생활을 즐기는 경향이 있으며, 무섭고 관습에 어긋나는 행동도 경험 해 보고 싶어 한다. 또한 목숨 걸고 등반하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며, 과속운전을 해 보고 싶어 한다. 또한 위험한 곳을 가보고 싶어 하고, 위험한 행동을 해 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감정이입(Emp)점수가 높은 사람은 옆 사람이 걱정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며, 지나치게 수줍어하는 사람을 보면 딱한 생각을 하곤 한다. 친구의 어려운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불길한 소식과 같이 안 좋은 소식은 남에게 전해주기 어렵게 느낀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는 결심할 수 없으며, 옆 사람의 기분에 따라 내 기분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이현수, 1997). 본 연구의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는 P .54, E .78, N .81, L .57, Imp .77, Ven .79, Emp .69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이용 동기. 매체 이용 동기를 조사하기 위해서 양일영과 이수영(2011)의 스마트폰 이용 동기 측정도구를 26문항으로 재구성한 신영미(2012)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5점 평정척도로 되어 있다. 하위 요인을 살펴보면 정보획득은 생활수단이나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오락 및 여가는 무료함을 달래거나 취미, 여가 활용, 오락 충족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있다. 그리고 서비스 통합성은 다양한 매체의 기능이 하나의 기기에 통합되어 있음을 뜻하며, 즉시성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필요한 기능을 즉각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 및 이용 편리성은 작동이 용이하며

다양하고 기능적으로 우수한 콘텐츠를 갖춰 사용이 편리하고, 과시 및 유행은 타인에게 과시하거나 유행을 따르기 위함이며, 관계 유지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다양한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신영미, 2012). Cronbach's α 는 정보 획득 .55, 오락 및 여가 .55, 서비스 통합성 .46, 즉시성 .74, 기능성 및 이용편리성 .65, 과시 및 유행 .87, 관계유지 .71로 나타났다. 서비스 통합성은 낮은 신뢰도를 보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성인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척도(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Adult: Self-report). 스마트폰 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에서 개발한 성인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 요인으로는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성, 금단, 내성이며, Cronbach's α 는 일상생활장애 .78, 가상세계지향성 .56, 금단 .84, 내성 .80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9.0과 AMOS 2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성격들과 스마트폰 이용 동기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을 알아보고,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과 이용 동기, 이용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모형을 설정하여 모형검증 및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했다.

결 과

스마트폰 중독과 각 변인 간 상관관계

스마트폰 중독과 이용 동기의 하위요인, 이용자의 성격 특성 중, P(정신병적 경향), E(외향성-내향성), N(신경증적 경향), L(허위성), Imp(충동성), Ven(모험성), Emp(감정이입)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스마트폰 중독은 오락 및 여가($r=.416, p<.01$), 기능성 및 이용편리성($r=.107, p<.05$), 즉시성($r=.107, p<.01$), 과시 및 유행($r=.281, p<.01$), 관계유지($r=.260, p<.01$), 신경증적 경향($r=.265, p<.01$), 충동성($r=.203, p<.01$), 감정이입($r=.189, p<.01$)과 정

적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허위성($r=-.109, p<.05$), 모험성($r=-.130, p<.01$)은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허위성의 경우,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는 경향으로 인해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모험성은 스마트폰 보다는 신체적 또는 모험적인 활동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부적상관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성격, 이용 동기 및 스마트폰 중독의 단계적 회귀분석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성격과, 이용 동기 및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

표 1. 스마트폰 중독, 이용 동기, 성격 간의 상관계수, 평균 및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													
2	.011	-												
3	.416**	-.052	-											
4	.194**	.172**	.446**	-										
5	.107*	-.006	.440**	.418**	-									
6	.281**	.137**	.034	.086	-.128**	-								
7	.260**	.172**	.157**	.120**	.079	.443**	-							
8	.047	-.065	-.029	-.106*	-.081	.159**	.014	-						
9	.056	.100*	.014	.082	.058	.182**	.206**	-.027	-					
10	.265**	-.024	.287**	.134**	.101*	.043	.040	.093*	-.189**	-				
11	-.109*	.078	-.159**	-.101*	-.140**	.131**	.047	-.049	.059	-.237**	-			
12	.203**	.062	.177**	.085	.035	.126**	.069	.282**	.106*	.483**	-.249**	-		
13	-.130**	.104*	.001	.032	.016	-.004	.095*	.083	.287**	-.064	.002	.172**	-	
14	.189**	-.033	.215**	.132**	.223**	.022	.115*	-.170**	.022	.380**	-.247**	.330**	.024	
M	32.51	8.60	7.58	7.57	12.49	6.82	5.71	1.32	7.80	6.14	3.76	5.95	7.43	9.12
SD	7.61	2.44	1.40	1.39	1.83	2.67	1.90	1.33	2.90	3.34	2.09	2.75	3.47	2.40

주. N=483, M(Mean)=평균, SD(Standard Deviation)=표준편차.

* $p<.05$, ** $p<.01$.

1. 스마트폰 중독, 2. 정보획득, 3. 오락 및 여가, 4. 즉시성, 5. 기능성 및 이용편리성, 6. 과시 및 유행, 7. 관계유지, 8. 정신병적 경향, 9. 외향성-내향성, 10. 신경증적 경향, 11. 허위성, 12. 충동성, 13. 모험성, 14. 감정이입.

표 2.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스마트폰 이용 동기 각 변인들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준거변인	예측변수	$B(SE)$	β	t	p	ΔR^2
스마트폰 중독	상수	15.022(2.300)		6.533	.000	
	오락 및 여가	2.420(.227)	.442	10.672	.000***	.173
	과시 및 유행	.586(.125)	.206	4.703	.000***	.071
	즉시성	-.620(.160)	-.160	3.874	.000***	.021
	관계유지	.428(.176)	.107	2.430	.015**	.009
$R^2 = .275(\text{Adj } R^2 = .269), F = 45.387, p = .000$						

주. $N=483$, SE =standard error(표준오차).

* $p<.05$, ** $p<.01$, *** $p<.001$.

표 3.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이용 동기에 대한 성격 각 변인들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준거변인	예측변수	$B(SE)$	β	t	p	ΔR^2
오락 및 여가	신경증	.100(.020)	.241	5.124	.000***	.083
	감정이입	.072(.027)	.123	2.624	.009**	.013
과시 및 유행	외향성	.175(.042)	.190	4.151	.000***	.033
	정신병	.294(.092)	.146	3.201	.001***	.027
	허위성	.201(.058)	.157	3.471	.001***	.016
	충동성	.116(.046)	.120	2.509	.012*	.010
	모험성	-.070(.036)	-.091	-1.979	.048*	.007
관계유지	외향성	.133(.029)	.203	4.577	.000***	.042
	감정이입	.088(.035)	.110	2.487	.013*	.012
오락 및 여가 : $R^2 = .096(\text{Adj } R^2 = .092), F = 25.348, p = .000$						
과시 및 유행 : $R^2 = .094(\text{Adj } R^2 = .084), F = 9.887, p = .000$						
관계유지 : $R^2 = .054(\text{Adj } R^2 = .051), F = 13.826, p = .000$						

주. $N=483$, SE =standard error(표준오차).

* $p<.05$, ** $p<.01$, *** $p<.001$.

표 4.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성격 각 변인들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준거변인	예측변수	$B(SE)$	β	t	p	ΔR^2
스마트폰 중독	상수	27.584(1.324)		20.826	.000	
	신경증	.517(.177)	.227	4.409	.000***	.070
	모험성	-.381(.100)	-.174	-3.799	.000***	.013
	외향성	.358(.122)	.137	2.943	.003***	.021
	충동성	.302(.142)	.109	2.126	.034*	.008
$R^2 = .113(\text{Adj } R^2 = .105), F = 15.149, p = .000$						

주. $N=483$, SE =standard error(표준오차).

* $p<.05$, ** $p<.01$, *** $p<.001$.

치는 것으로 확인된 이용 동기에는 어떤 성격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스마트폰 중독과 이용 동기와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 동기는 오락 및 여가($\beta = .44, p < .001$), 과시 및 유행($\beta = .21, p < .001$), 즉시성($\beta = -.16, p < .001$), 관계유지($\beta = .11, p < .001$)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즉시성은 스마트폰 중독을 부적적으로 예측했다. 이는 즉각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발생했을 때에만 이용하고 목적을 달성 한 후에는 그 필요성이 감소하여 중독적인 사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오락 및 여가, 과시 및 유행, 관계유지를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용 동기와 성격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오락 및 여가에는 $P(\beta = .24, p < .001)$, $Emp(\beta = .123, p < .001)$, 과시 및 유행은 $E(\beta = .19, p < .001)$, $P(\beta = .15, p < .001)$, $L(\beta = .20, p < .001)$, $Imp(\beta = .12, p < .001)$, $Ven(\beta = -.09, p < .001)$ 이었다. 모험성은 과시 및 유행에 부적적인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관계유지에는 $E(\beta = .20, p < .001)$, $Emp(\beta = .11, p < .001)$ 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특성으로는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고, $N(\beta = .23, p < .001)$, $Ven(\beta = -.17, p < .001)$, $E(\beta = .14, p < .001)$, $Imp(\beta = .11, p < .001)$ 이었다. 외향성(E)의 경우, 스마트폰 중독과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지만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억제효과(suppressor effect)로 변수 간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날 수 있다(Cohen, Cohen, Aiken, & West, 2002).

성격, 이용 동기, 스마트폰 중독 간의 구조 모형 분석

앞서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과 이용 동기,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 동기는 어떤 성격 특성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성격 특성과 이러한 성격에 따른 이용 동기가 스마트폰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2단계 모형추정 확인 절차(Kline, 2005)에 따라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ML)추정방법에 의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적합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오락 및 여가의 7번 문항에서 Heywood case가 발

표 5.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χ^2	df	p	SRMR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적합도 지수 (수정 전)	1019.153	516	.000	.0543	.890	.905	.045 (.041-.049)
적합도 지수 (수정 후)	690.026	294	.000	.0522	.902	.917	.052 (.047-.058)

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음 오차분산에 매우 작은 양의 값인 .005를 입력하여 고정시켰다 (문수백, 2009). Heywood Case에 대한 조치 이후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chi^2=1019.153(df=516, p=.000)$, SRMR=.0543,

TLI=.890, CFI=.905, RMSEA=.045 (90%신뢰구간 .041-.049)로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지 않았다. 모형의 수정은 낮은 추정값을 보이는 정신병적 경향성(P)과 허위성(L)을 삭제하였다. 더불어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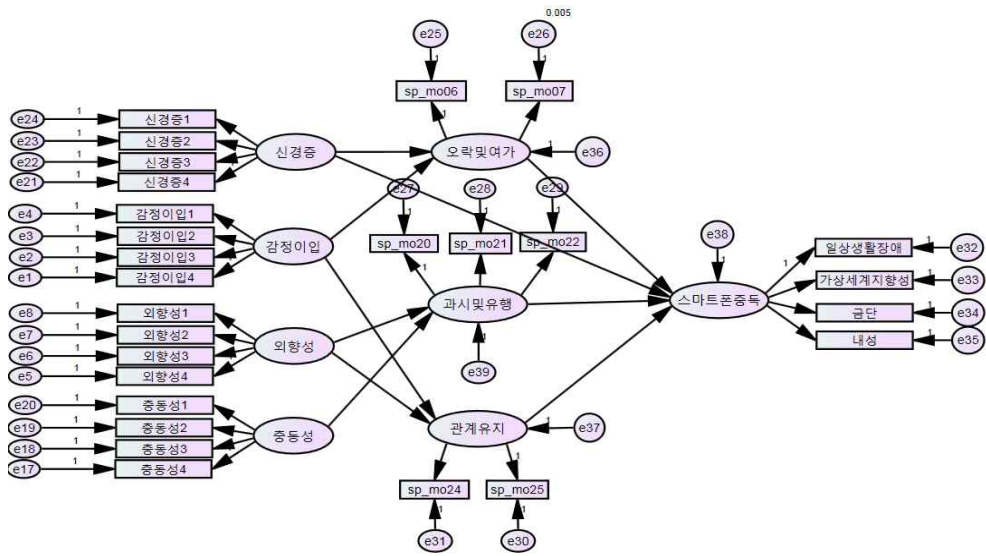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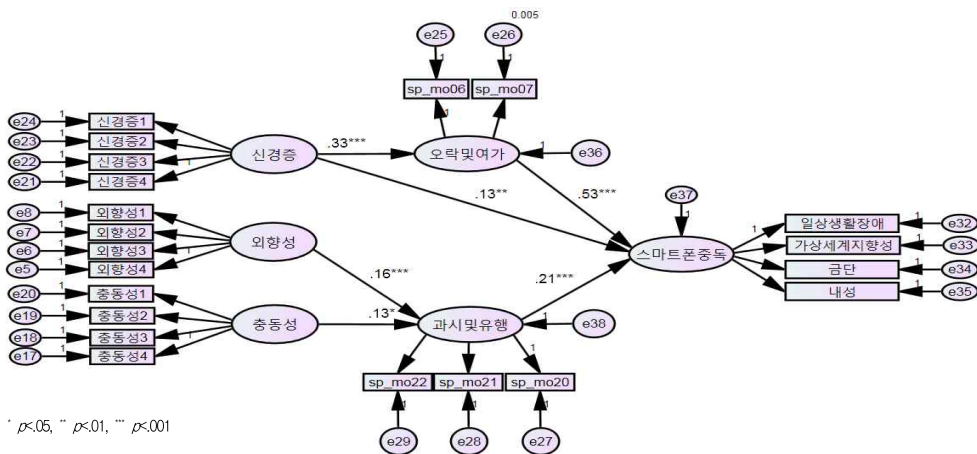


그림 1. 단계적 회귀분석, 측정모형 분석 후의 제안모형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구조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수정 후)

해 성격의 모험성 또한 삭제하였다. 측정모형의 수정 전과 후의 적합도 지수는 표 5와 같다.

수정 후 측정모형의 적합도지수는 $\chi^2=691.026$ ($df=297$, $p=.000$), SRMR=.0522, TLI=.902, CFI=.917, RMSEA=.052 (90%신뢰구간 .047-.058)로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냈다.

측정모형 검증을 바탕으로 하여 성격, 이용 동기, 스마트폰 중독 간의 구조적 관계를 설정하였다(그림 1). 제안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6(수정 전)에 제시하였다. 결과는 $\chi^2=1089.653$ ($df=315$, $p=.000$), SRMR=.1196, TLI=.819, CFI=.838,

RMSEA=.071 (90%신뢰구간 .067-.076)로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지 않아 모형을 수정하기 위해 관계유지 동기, 감정이입(Emp)변인을 삭제하였다.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6(수정 후),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성격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이용 동기의 매개효과

구조모형 검증을 통해 신경증적 경향이 오락 및 여가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표 6.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χ^2	df	p	SRMR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적합도 지수 (수정 전)	1089.653	315	.000	.1196	.819	.838	.071 (.067-.076)
적합도 지수 (수정 후)	503.928	184	.000	.1049	.904	.916	.060 (.054-.066)

표 7.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모수	B	β	SE	CR	p
오락및여가 ← 신경증	.118	.329	.022	5.386	.000***
과시및유행 ← 외향성	.206	.184	.061	3.366	.000***
과시및유행 ← 충동성	.159	.135	.066	2.404	.016*
스마트폰중독 ← 오락및여가	4.431	.535	.609	7.272	.000***
스마트폰중독 ← 과시및유행	.711	.214	.142	4.991	.000***
스마트폰중독 ← 신경증	.385	.129	.138	2.790	.005**

주. * $p<.05$, ** $p<.01$, *** $p<.001$.

표 8. 성격, 스마트폰 중독 사이 이용 동기의 매개효과 검증

경로	Z_{ab}	p
신경증적 경향 → 오락 및 여가 → 스마트폰 중독	4.317	.000***
외향성-내향성 → 과시 및 유행 → 스마트폰 중독	2.800	.000***
충동성 → 과시 및 유행 → 스마트폰 중독	2.171	.000***

주. *** $p<.001$.

오락 및 여가는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외향성-내향성과 충동성은 과시 및 유행 이용 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과시 및 유행이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신경증적 경향과 스마트폰 중독 사이에서 오락 및 여가 이용 동기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지, 외향성-내향성, 충동성과 스마트폰 중독 사이 과시 및 유행 이용 동기의 완전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했다.

매개효과 검증 결과, 신경증적 경향과 스마트폰 중독 사이를 오락 및 여가 이용 동기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향성-내향성, 충동성과 스마트폰 중독 사이를 과시 및 유행 이용 동기의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표 8).

논 의

본 연구는 스마트폰 이용 동기와 개인의 성격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스마트폰을 포함한 디지털 매체의 중독 연구를 살펴봤다. 기존 연구는 개인의 다양한 성격특성을 다루지 않았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 동기를 포함한 연구는 미미했다. 연구 결과,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스마트폰 이용 동기는 오락 및 여가, 과시 및 유행, 관계유지 동기로 나타났고 성격특성으로는 신경증적 경향(N), 외향성-내향성(E), 충동성(Imp)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스마트폰 이용 동기인 오락 및 여가에는 신경증적 경향(N)과 감정이입(Emp)이 영

향을 미쳤고, 과시 및 유행에는 외향성-내향성(E), 정신병적 경향성(P), 허위성(L), 충동성(Imp)이 영향을 미쳤다. 관계유지 이용 동기에는 외향성-내향성(E), 감정이입(Emp) 성격특성이 영향을 미쳤다.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 모형을 설정하여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오락 및 여가, 과시 및 유행, 신경증적 경향(N)으로 나타났고 오락 및 여가에는 신경증적 경향(N)이 유의하게 영향을 주었다. 또한 과시 및 유행에는 외향성-내향성(E), 충동성(Imp)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구조모형 검증 후, 매개효과를 검증했다. 결과는 스마트폰 중독과 신경증적 경향(N) 사이를 오락 및 여가 이용 동기가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중독과 외향성-내향성(E), 충동성(Imp) 사이에는 과시 및 유행 이용 동기가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 기분변화가 심해 쉽게 우울해지는 경향성이 높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중독적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성격특성을 가진 사람은 스마트폰을 오락이나 여가활동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스마트폰 중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적절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오락이나 여가활동으로 사용하게 되고, 오락이나 여가활동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항상 기분이 좋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사교적, 활동적, 생기가 넘치는 사람과 충동적이고 깊

이 생각하지 않으며 나중에 후회할 만한 일에 자주 관여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도구로 삼거나 유행에 민감하면 뒤이어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즉, 외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 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돋보이고자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 받는 것을 즐기는 경향이 있는데, 스마트폰을 매개로 하여 이러한 욕구를 충족할 수도 있다. 이런 경향성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단,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충동성이 높은 사람은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됐을 때,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갖고 싶다’, ‘써보고 싶다’는 생각에 휴대폰을 충동적으로 바꾸게 된다. 이후,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교체하고 나서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관심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곤 한다. 이는 자신이 유행을 선도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주어 스마트폰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면 더욱 스마트폰에 집착하게 되고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단, 충동성이 높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지 않는다고는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스마트폰이 활성화되기 전, 휴대전화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이용 동기인 오락 및 여가(박지영 등, 2012; 이해경, 2008; 장은순, 2006; 허정선, 2009), 과시 및 유행 동기(장은순, 2006)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성격에서는 신경증적 경향성이 휴대전화 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결과와도 일치했다. 그러나 충동성이 휴대전화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인된 선행연구(장혜진, 2002; 조혜연, 2001; 한주리, 허경호, 2004; Blaszczynski, Steel, & McConaghy, 1997)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이 일반적인 휴대전화에 비해, 컴퓨터에서 가능했던 기능이 추가되면서 충동성만으로는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충동성이 과시 및 유행 이용 동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충동성은 스마트폰 중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스마트폰 중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에서도 오락 및 여가(임혜진, 이은희, 2015; 조미경, 2014), 과시 및 유행 동기(임혜진, 이은희, 2015), 신경증적 경향성(조수연, 2014)이 스마트폰 중독을 정적으로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휴대전화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은 비슷한 특징을 보이나 일부 영역에서는 매체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격과 이용 동기로 실시한 연구이다.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분야가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선행연구가 미미할 실정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휴대전화 중독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로, 스마트폰 중독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성격과 이용 동기로 연구를 진행한 적은 없었다. 따라서 이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살펴본 후, 구조적인 관계를 확인하였다. 둘째, 스마트폰 중독, 이용 동기와 성격 간에 단계적 회귀분석, 모형검증, 매개검증의 실시로 다양한 인과적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이지만,

Bowen과 Firestone(2011)의 주장에서처럼 매체중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터넷, 휴대전화, 스마트폰 중독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변인들 간의 모형을 설정했고, 그 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매개효과 분석까지 폭 넓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향후 스마트폰 중독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스마트폰 중독 성향의 사람들에게 치료적 제안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신경증적 성향이 있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중독의 위험성이 있고, 이러한 특성은 오락 및 여가 이용 동기를 활성화 시켜 스마트폰 중독으로 빠질 위험성이 있다. 또한 외향성과 충동성이 높은 사람들이 과시 및 유행 이용 동기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스마트폰 중독으로 연결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경증적 경향, 외향성, 충동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예방과 건강한 사용법에 대한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함의점에도 불구하고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아동·청소년, 직장인, 주부 등 다양한 대상을 포함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자의 비율이 높아, 향후 연구에서는 남녀의 성비를 비슷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남자, 여자의 스마트폰 이용 동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많은 사례수를 확보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 특성을 파악한다면 성별에 따른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연구의 부족으로 인해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라는 제한점을 가

진다. 일반적으로 경로를 설정할 때는 다량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경로를 설정하지만 선행연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본 연구는 다량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경로 설정을 하지 못했으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으로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성격이, 때에 따라 달라지는 스마트폰 이용 동기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사용자의 성격에 따른 이용 동기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칠 것이라는 인과관계에 따른 가설 설정에 기인한 것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설정된 모형이 인위적이라는 제한점을 가진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구조적 모형의 제시와 함께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요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단계적 회귀 분석 결과 모형성은 스마트폰 중독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스마트폰 중독의 보호요인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 강주연 (2012). 직장인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대처방식, 충동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희양, 박창호 (2012).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563-580.
- 김교현 (2002).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중독.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2), 159-179.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 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미래창조과학부 (2016). 무선통신 사업자 통계. <http://>

- www.msip.go.kr에서 자료 얻음.
- 박지영, 김귀애, 홍창희 (2012).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이용 동기, 또래관계 및 정서적 요인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1), 151-169.
- 송선희, 하대현, 최형주 (2004). 내,외재 동기 유형과 Big-five 성격요인과의 관계 연구. *한국교육한연구*, 10(1), 125-150.
- 신석기, 최태진, 박성미, 이은영, 김유미 (2007). 심리검사의 이론과 실제. 경기: 서현사.
- 신영미 (2012). 스마트폰 이용 동기 및 정도와 과다사용간의 관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일영, 이수영 (2011). 이용 동기에 기반한 스마트폰 초기 이용자 유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55(1), 110-138.
- 엠펙트 (2015,10,23). 자기에 강하고 신경질적인 사람, 스마트폰중독 위험 높다. <http://www.mdfact.com/healthlife/477/1>에서 자료 얻음.
- 우형진 (2007). 미디어 이용자의 자아 안정성, 성향적 미디어 이용 동기, 플로우, 그리고 중독에 관한 연구: 온라인 게임, 인터넷, 휴대폰 중독 비교분석. *한국방송학보*, 21(4), 101-140.
- 이성엽, 구동모, 주선희 (2009). 개인 심리 요인이 모바일 콘텐츠 이용에 미치는 영향. *경영연구*, 24(1), 127-158.
- 이용 (2008). 한국과 중국의 인터넷 이용행태 비교연구: 한·중 대학생들의 이용 동기와 성격 요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해경 (2008).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을 예측하는 변인들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1), 133-157.
- 이현수 (1997). 한국판 아이젠크 성격검사: 검사 실시 및 결과해석을 위한 지침서. 서울: 학지사.
- 임혜진, 이은희 (2015). 중학생의 스마트폰 이용 동기와 열정, 자존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2015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314-314.
- 장은순 (2006).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동기와 중독의 관계. 한서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혜진 (2002). 휴대폰 중독적 사용집단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미경 (2014). 일 대학 간호학과 학생의 스마트폰 이용 동기, 중독과 자기 통제력의 관계. *디지털융복합연구*, 12(5), 311-323.
- 조수연 (2014). NEO 청소년 성격 특성과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의 취약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매개변인으로.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현욱 (2012).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 충동성 및 지각된 스트레스의 차이.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혜연 (2001).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과 성격특성변인 연구 : 자기효능감, 자기통제감, 공격성, 충동성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겨레 함께하는 교육 (2012, 9, 3).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라. 6면.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 개발 연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2011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2014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주리, 허경호 (2004). 이동전화 중독척도개발 및 타당성검증. *한국언론학보*, 48(6), 138-165.
- 허정선(2009).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동기와 병리적 인터넷 사용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laszczynski, A., Steel, Z., & McConaghy, N. (1997). Impulsivity in pathological gambling: The antisocial impulsivist. *Addiction*, 92(1), 75-87.
- Bowen, M. F., & Firestone, M. H. (2011). Pathological use of electronic media: case studies and commentary. *Psychiatr Q*, 82, 229-238.
- Eysenck, H. J. (1970). *The structure of human personality* (3rd ed.). London: Methuen.
- Eysenck, H. J., & Eysenck, B. J. (1991).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 Revised (EPQ-R)*. Hodder & Stoughton.
- Cattell, R. B. (1950). *Personality: A systematic*

theoretical and factual study. New York: McGraw-Hill.

Cohen, J., Cohen, P., Aiken, L. S., & West, S. G. (2002). *Applied multiple regression 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3rd 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원고접수일: 2015년 7월 2일

논문심사일: 2015년 7월 23일

게재결정일: 2016년 3월 8일

Effect of Personalities and Use Motivations of Smartphone Users on Smartphone Addiction

Seon-Jong Lee Min-Kyu Rhee
Gyeongs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Smartphone Use Motivations and Personality on Smartphone Addiction. The participants were 483 college students(male 189, female 294) in Busan, Ulsan, Gyeongnam, Daegu, Gyeongbuk. They were administered the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Adult: Self-report, Smartphone Use Motivations Scale, and Korean-Eysenck Personality Scale for Adult(K-EPS: Adult). The impact of Smartphone Use Motivations and Personality on Smartphone Addiction respectively were analyzed by stepwise regression. Entertainment and Leisure, Flaunt and Trend, Keep the relationship Motivations positively predicted Smartphone Addiction. Also, Neuroticism, Extraversion-introversion, and Impulsiveness positively predicted Smartphone Addiction. Neuroticism and Empathy showed a significant impact on Entertainment and Leisure. In addition, Extraversion-introversion, Psychoticism, Lies, and Impulsiveness showed significant impact on Flaunt and Trend Use Motivations. Extraversion-introversion, and Empathy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 Keep the relationships. Structural model based on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Neuroticism, Extraversion-introversion, Impulsiveness, Entertainment and Leisure, Flaunt and Trend, and Smartphone Addiction. Entertainment and Leisure partially mediated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Neuroticism. Flaunt and Trend fully mediated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Extraversion-introversion, and Impulsiveness.

Keywords: smartphone addiction, personality, use motivations